

## 왕슈 소설의 또 다른 모습, 영화 〈갭방을방〉

황선미\*

### <目 次>

1. 들어가며
2. 〈갭방을방〉 원작 소설
  - 1) 「완주」 — 그릇된 의식
  - 2) 「속물」 — 건달의 선행
3. 〈갭방을방〉 —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
4. 나오며

### 1. 들어가며

1980년대 초기에 중국 정부는 현대화라는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 주도하에 시장경제를 향한 변혁이 가파르게 진행되었으나 문학 작품의 생산, 유통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 및 간섭을 받아야만 했다. 1992년 10월, 중공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 더 큰 승리를 탈취하자’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당의 목표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예 시장 경제화’와 ‘문학의 상품화’로 불리었던 현상들이 생기면서 문학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sup>1)</sup> 이 시기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왕슈(王

\*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중국학과 겸임교수.

1) 중국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이후 큰 변화를 이루어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1990년대에 다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시장자유화를 지향하는 경제 모델이 확립되었다.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등을 배경으로 도시 부유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오락이나 가치관이 출현했으며, 문학계

朔)를 중심으로 당대 유명 작가들은 작가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다. 서서히 소설 등 문학 작품도 시장을 형성하였고 인기 있는 작품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였다. 이전에 작가 협회와 문협 등 정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받은 원고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왕취는 1958년에 난징(南京)에서 태어났다. 그 해는 이른바 '대약진' 시대였다. 그는 문혁 시기 때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속의 상흔을 풀어내는 방식은 기존 작가들과 달랐다. 중국 변혁의 고통스런 역사를 소설 속에 반영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냉소하거나 조롱하며 '노는' 방식을 취한다. 왕취는 재미있고 신선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하여,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88년에는 그의 소설 4편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이른바 '왕취붐(王朔熱)'을 일으켰다. 당시 이 현상에 대해 베이징의 『광명일보(光明日報)』(1989.6.6.)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최근 '왕취붐'이 문예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그의 소설 4편이 이미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그의 소설을 간행하는 간행물은 인쇄부수가 늘어나고 있다. 왕취를 지지하는 자는 1988년을 '왕취의 해'라 부르고, 공격하는 자는 그의 작품을 '건달문학', 혹은 '무례문학'이라 부른다. 신유파(新流派) 평론가는 왕취를 '현대파' 혹은 '후기선봉파' 계열에 포함시키고, 통속문학에서는 그를 통속문학의 맹장으로 간주한다. 법제문학에서는 왕취와 법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2)</sup>

동일 작가 소설 4편이 같은 해에 영화로 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sup>3)</sup> 1988년을 맞으면서 왕취는 남녀노

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문학이 정치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로부터 창작, 출판, 유통 등 시장과 밀착하는 영리적 행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국인의 사상과 의식변화가 거세지면서 문학의 상업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 경제화에 의한 '시장 문학'은 문학 영역에도 침입, 작가의 창조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문학작품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2) 肖珂, 『光明日報』, 1989.6.6.

3) 영화로 제작된 소설 원작은 『물 위의 연가(浮出海面)』(영화 제목은 〈輪回〉), 『절반은 불꽃,

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과 도시 너머 뒷골목까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문학계에서도 이 해를 ‘왕취의 해’라 불렀다. 성공적인 흥행 성적으로 영화계와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왕취는 TV 드라마 분야에도 진출하였다. 1989년에는 ‘해마미디어창작센터(海馬影視創作中心)’를 설립하여, 〈갈망(渴望)〉(1990), 〈편집부의 이야기(編輯部的故事)〉(1991) 등 다수의 TV 드라마 히트작도 배출했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왕취의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그가 직접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했던 작품이 총 23편이다. 이 중 영화가 18편, TV 드라마가 5편이다. 중국 작가 중 왕취 만큼 영화와 TV 드라마와 인연이 깊은 작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왕취와 영화와의 관계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평샤오강(馮小剛)이다. 평샤오강은 1994년에 왕취의 소설 「내 사랑을 잃다(永失我愛)」와 「스튜어디스(空中小姐)」를 각색하여 그의 처녀작 〈내 사랑을 잃다(永失我愛)〉를 제작했다. 영화 평론가 리성윈(李星雲)은 왕취와 평샤오강의 관계를 “왕취의 진심, 평샤오강의 모험”<sup>4)</sup>이라는 말로 형용한다. 왕취의 진심과 평샤오강의 모험이 만나 환상적 호흡을 선보이며 진가를 발휘했던 영화는 1997년에 제작된 〈갑방을방(甲方乙方)〉이었다. 이 영화는 중국 최초의 ‘하세편(賀歲片)’으로 유명해졌으며, 당시 자국 영화로 흥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 중심적이었던 중국 영화계의 판을 깨는 것이었다.

〈갑방을방〉은 왕취의 단편소설 「당신은 속물이 아닙니다(你不是一個俗人)」(이하 ‘속물’로 칭함)를 각색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섯 명의 남녀가 사회와 단절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치켜세우며(捧人)’ 위로해주고, 꿈의 회복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냉소적 코미디 터치로 그린 소설이다. 하지만 1992년에 발표된 「속물」은 왕취의 소설 중에는 그리 주목 받지 못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이 소설을 평샤오강은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베이징 영화제작소 소장이었던 한산핑(韓三平)에게 왕취의 소설 「속물」이 떠

질판은 바다(一半是火焰, 一半是海水)」(영화제목 동일), 『고무인간(橡皮人)』(영화 제목은 〈大喘氣〉), 『완주』(영화제목 동일)이다.

4) 人民網, 「王朔的影像化之路: 文字與影視聯姻的“范本”」, 2013.12.27.

올라 소설의 메인 스토리인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好夢一日游)'에 대해 들려 주었다."<sup>5)</sup>라고 말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오던 꿈을 하루 동안 실현시켜 준다는 이야기에 평샤오강은 매료된 듯하다. 그는 베이징 영화제작소의 투자를 받아, 1997년 8월 14일에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45일 만에 영화를 완성하여, 같은 해 12월 20일에 상영했다. 당시 소설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갭방을방〉은 흥행에 성공했다. 〈갭방을방〉 "흥행수입은 1150만 위안이었고, 전국에서의 흥행 수입은 3300만 위안이었다.…… 이것은 천문학적 수치였다."<sup>6)</sup>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몰리면서 침체되어 있던 중국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본고는 〈갭방을방〉의 원작 소설인 「속물」과 영화 창작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왕췌의 완주 시리즈의 작품인 「속물」이 왜 소설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지, 감독 평샤오강은 이 소설의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새롭게 각색하여 흥행작을 만들었는지 분석하여 대중문학과 대중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일견을 보태고자 한다.

## 2. 〈갭방을방〉 원작 소설

앞서 서술했듯이, 〈갭방을방〉은 왕췌가 1992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속물」을 각색한 것이다. 평샤오강은 한 인터뷰에서 “〈갭방을방〉의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이라는 스토리 전개는 〈완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sup>7)</sup>라고 밝힌바 있다. 영화 〈완주〉는 왕췌 소설 「완주(頑主)」를 각색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갭방을방〉은 왕췌 소설 「완주」와 「속물」이 합작으로 탄생시킨 것이다.<sup>8)</sup>

「속물」은 「완주」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완주」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완

5) 馮小剛, 『我把青春獻給你』,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3, 104쪽.

6) 周慧, 『誰製造了中國電影的神話』,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5, 171쪽.

7) 豆瓣, 『從《頑主》到《甲方乙方》, 《私人訂製》是屬於誰的訂製?』, 2013.12.27. 中國新聞網, 『評論:《私人訂製》明顯更嚴肅了』, 2013.12.20.

8) Sina影音娛樂, 『《南方人物周刊》: 馮小剛被挫敗的人才能成功』, 2009.1.9.

9) 「완주」는 1987년 『수확(收穫)』 제6기에 발표되면서, 「노는 것은 신나는 것(玩的就是心跳)」(1989), 「진실이라곤 없어(一點正經沒有)」(1989) 등과 함께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왕췌는 이 시리즈물로 문단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2004년에 왕췌는 윈난런민(雲南人

주」시리즈는 왕취의 대표작 중 하나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류층 및 지식인의 위선을 조롱하고,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전환기에 급격하게 변화된 인간의 빼뺏어진 가치관을 잘 드러냈다. 「완주」의 제목 '頑主'는 베이징 방언으로, 돈도 없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위도식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玩主'로도 치환하여 쓰이며,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샤오잉(蕭鷹)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통은 곧 '장래와 의미, 이상과 가치에 대한 거부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속하지 못한 채 그 변두리의 표류자일 수밖에 없음'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완주」의 인물들을 표류하는 황당한 인간형상이라고 규정지는 바 있다.<sup>10)</sup>

왕취는 「완주」와 「속물」에서 숭고한 품성과 인격을 갖춘 '위대'한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대신 사회 하층민인 건달들을 등장시킨다. 왕취는 건달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류층과 지식 계층의 부패, 사회 모순 및 시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주인공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고급스럽지 않다.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회화 중 육두문자를 포함한 베이징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개성 넘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연출한다. 이들은 사회 하층에 위치한 소인배의 대변자로서 사회를 지배하는 전통과 권위에 도전한다.

「완주」에 등장하는 주인공 건달들은 '3T(三替)'라는 회사를 차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럴 듯하게 사기치며 돈을 번다. 5년 후에 왕취는 이들을 「속물」에 동일하게 등장시켜 '3하오(三好)'라는 다른 회사를 차려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에게 주목하게 한다. 이 두 소설은 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왕취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회 밑바닥 하류인생인 건달들을 등장시켜, 이들의 관점에서 1980년대 지식인과 상류계층의 허위의식을 유포와 풍자로 비판했다. 이 두 소설은 중국의 베이징을 서사적 배경 공간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 펼쳐지는 하층민들의 새로운 서사를 왕취 작가의 풍부한 서사적

민)출판사에서 『완주』시리즈를 다시 출간하는데, 그 속에는 「완주」, 「진실이라곤 없어」, 「속물」, 「취나리(許爺)」, 「와일드 비스트(動物兇猛)」 등 5편의 중, 단편 소설을 완주 시리즈에 포함시켰다.

10) 蕭鷹, 「近年非理性主義小說的批判」, 박재연 옮김, 『물위의 연가』, 빛샘, 1992, 299쪽 재인용.

재능으로 능란하게 이끌어간다. <갑방을방>의 원작소설인 「속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면인 「완주」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1) 「완주」—그릇된 의식

1987년 『수확(收穫)』 제6기에 실렸던 「완주」는 집필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왕슈의 대표작이다. 「완주」가 실렸던 『수확』은 신중국 건립 후 가장 먼저 창간된 순수문학 잡지로서, 당시 중국 문단 작가들의 사회적 담론의 장이었다. 특히 「완주」가 게재되었던 1987년 제6기는 『수확』이 창간된 지 30주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 주편(主編)을 맡았던 바진(巴金)의 축사가 표지 맨 앞장에 실렸고, 이어서 추신(球心), 차오가오(曹高), 류바이위(劉白羽), 왕안이(王安憶), 장청즈(張承志) 등과 같은 중진 작가부터 현재에도 활약하고 있는 젊은 작가까지 모두 38명의 작가가 축사를 보내왔다. 이 축사 직후 『수확』 30주년 기념호의 권두로 실린 작품이 바로 왕슈의 「완주」였다.<sup>11)</sup> 「완주」는 직설적이고 자극적이며 도발적이었다.

“나는 작가예요. 바오캉(寶康)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없나요?”

.....

마칭: “린베이, 너 조심해. 바오캉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불량배를 불량배로 부르지 않고 작가라고 부르는 것 못 들어봤어?”

위관: “자살하는 방법이 백 개가 있다고 하던데, 그 중 하나가 작가와 결혼하는 거래.”<sup>12)</sup>

왕슈의 거침없는 ‘도발’과 조롱하는 듯한 빈정거림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인민을 교화’하는 입장에 서 있는 스승이나 작가와 같은 지식인을 위선자로 설정하고, 그 반대 인물로 사회의 하층계급이나 아웃사이드어 삶

11) 吉川 龍生, 「王朔小説序論: 스타일의變遷と第一次王朔現象を中心に」, 『藝文研究』 Vol.84, 慶應義塾大學藝文學會, 2003, 90쪽.

12) 王朔, 「頑主」, 『收穫』 第六期, 1987.

을 묘사하는데 주력했다. 「완주」속 주인공들은 사회에서 하류인생을 살아가는 건달 즉, 알뜰한 이익을 꾀하는 세 명의 젊은이들, 위관(于觀), 양충(楊重), 마칭(馬青)이다.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장난기가 많고 제멋대로이면서 때로는 솔직하고 진실하다. 당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시장경제의 허허벌판에 먼저 내몰린 이들은 적당히 규정을 어겨가며 본능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작가 왕췌도 다르지 않았다. 왕췌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장을 들락거리며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간 군대에서는 집단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목도하면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다. 그곳에서 그의 일탈적 행동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 버렸다. 현역 해군이지만 도박, 술, 여자에 빠져 영내에 복귀하지 않고, 심지어 부대 내 물품들을 몰래 빼내어 암거래를 했다. 이로 인해 1982년에 당 중앙이 실시한 경제사범 단속에서 암거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sup>13)</sup>

당시 청년들은 문혁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들에게도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삶의 가치는 물질적 요소로 치중되었다. 당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생 목표는 당혹스럽고, 현실감이 결여된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강했다. 사회적 책임감이 스며들 여지는 없었으며, 정치의식도 박약했다. 반대로 실용주의, 개인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에 청년들은 강한 매력을 느꼈으며, 일부 청년에게는 목표가 되었다.”<sup>14)</sup> 인간의 가치 목표는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변화하고 국가, 사회의 약속에서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개인 위주로 되면서 세속,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졌다. 위관을 비롯한 세 명의 건달도 적당히 사기 치며 돈을 벌어 볼 양으로 자본금도 없으면서 ‘3T’라는 회사를 차렸다. ‘3T’란 “당신을 대신해 걱정을 없애주고(替人排憂), 당신을 대신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替人解難), 당신을 대신해 참아주는(替人受過)”<sup>15)</sup>에서 세 번 되풀이되는 ‘대신하다’는 의미로, 동음인

13) 左舒拉, 「王朔——無視常規的俗人」, 『大眾電影』第六, 七期連載, 1989, 박제연 옮김, 『노는 것 만큼 신나는 것도 없다』, 빛샘, 1992, 333~353쪽 참고.

14) 單光廬, 『偏離與吸納——中國青年發展報告』, 遼寧人民出版社, 1994, 34쪽.

15) 王朔, 앞의 글.

‘替(ti)’로 대체한 것이다. Technology(기술), Technic(기교)을 연상시키는 ‘T’이 기도 하다.

의뢰된 대행업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항문과 의사는 응급 환자 때문에 백화점 손수건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과의 데이트를 할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 여성과 데이트해줄 것을 의뢰한다. 또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젊은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며 가정 내의 분쟁 해결책을 모색해준다. 건달들이 전문적 지식도 없으면서 심리 상담까지 해준다. 업무가 끝난 후에는 물론 수고비를 받아 챙겼다. “우리는 숙련공의 5급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따라 가격을 매깁니다. 한나절이 안 되더라도 한 나절로 계산하고, 8시간이 초과하면 잔업 수당을 받습니다. 식대와 야근수당은 국가현행 규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며, 교통비는 실비로 계산됩니다.”<sup>16)</sup> 이들은 숙련공의 등급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노동자 임금으로 수고비를 책정했다. 중국의 엔지니어는 대부분 공대를 졸업한 중급 기술자로서, 3급 혹은 4급에 해당한다. 기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고등교육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숙련공으로서, 일반적인 업종 노동자나 창고관리, 운반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과거에 수습을 한 적이 없어도 1급에 해당한다. 아무리 승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4급을 넘을 수는 없다.<sup>17)</sup> 주인공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도 없으면서 5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이 건달들의 요구를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쉬지린(許紀霖)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인에게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개혁개방 이래 30년 동안 중국인에게 자아의식과 권리의식이 발달하고, 중국에는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했다. 하지만 도덕적 자주성을 가진 권리와 책임의 밸런스가 이루어진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아니라 자아를 중심으로 몰욕을 구하는 공적인 책임을 포기한 개인주의(egoism)였다”<sup>18)</sup> 「완주」 속 주인공들에게도 도덕성과 양심을 가진 올바른 가치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돈만 벌

16) 위의 글.

17) 每日頭條, 「中國國企工人與技術人員的等級取得和收入差別」, 2016.9.1.

18) 許紀霖, 「大我的消解: 現代中國個人主義思潮的變遷」, 『中國社會科學輯刊』第26號, 2009, 1쪽.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왕취는 빼놓아진 가치관을 가진 건달을 매개로 지식인과 상류계층, 특히 작가의 허위의식을 꼬집는다. 이에 그는 청년 작가인 바오강(寶康)을 등장시킨다. 바오강은 어느 날 '3T'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사람에게 작가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가져오 작가 시상식을 개최해 달라는 의뢰를 한다. 바오강에게는 작가로서의 권위나 존엄성 같은 것은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단 하루 스승으로 모셨더라도 평생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가르침은 2천여 년 간 중국인 머리속에 각인되어 내려왔으나 문혁 시기에 유교 타도를 목표로 하는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에서 지식인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동적으로 된다'라고 규정지으며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철저히 지웠다. 하지만 문혁시기가 지나고 신시기가 도래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자'라는 방침을 제창했다. 지식인들은 중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힘과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이끌어갈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왕취는 위선적이고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 지식층에 따른 문화적 패권에 대하여 반항'의 깃발을 들었다. 왕취는 「완주」에서 지식인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면서 전환기에 놓인 중국사회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특히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청년들의 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세 명의 건달은 「속물」에서도 계속 '완주'로서 존재할까.

## 2) 「속물」—건달의 선행

왕취는 「완주」에서 등장했던 주인공들을 5년 후에 「속물」이라는 소설에 다시 등장시켜 「수확」 제2기에 발표했다. 「완주」에서 등장한 건달들이 적당히 사기시켜 신나게 놀았다면 「속물」에서는 제멋처럼 속물이 아닌 도덕적인 '건달'로 다시 돌아온다.

왕취는 '속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바 없다. 그는 소설 속에 한 카피라이터를 등장시키면서, 그의 입을 통해 '속물'에 대해 독자에게 설명해준다. 카피라이터는 "많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즉, 만담, 무협소설,

슬픈 영화, 팝송, 패션쇼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인과 다른, 속물의 기준인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가 자랑스러워요.”<sup>19)</sup>라고 하며, 만담, 영화, 팝송과 같은 대중적인 것,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무리를 속물이라 정의 내린다. 하지만 카피라이터는 속물인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왕쉬는 「속물」에서 현대, 대중적인 것을 배척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대명사였으며 전통문화에서 신성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폭로한다. 왕쉬는 또 한번 하층민을 대변하는 건달들을 통해 지식인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고발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경제 이익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이념이 사회 전체를 뒤덮게 되었다. 사람들은 ‘개인의 물질적인 생활의 개선’에만 주목하고, 이를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알뜰한 공리의식이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전 사회에 만연되어있었다.<sup>20)</sup> “사회가 이익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돈과 교환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시, 사랑, 철학, 양심, 존엄, 또한 80년대에 풍미했던 골드바흐의 추측 등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었”<sup>21)</sup>으며, 이에 ‘인심의 악화(人心的惡化)’가 만연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왕샤오밍(王曉明)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감, 기본적인 가치관, 윤리관, 삶의 의미처럼 형태가 없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2)</sup> 사회적 가치관의 부재 속에 세 명의 건달은 ‘3하오’를 차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덕담으로, 좋은 꿈을 꾸게 하자’<sup>23)</sup>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강박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했다. 타인을 경멸하고 서로 공격만 일삼는 사회 풍조에 대한 반감으로 만든 회사로<sup>24)</sup>, 상대방을 ‘치켜세우며(捧人)’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즉 고객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선사해주는 회사였다.

세 명의 건달은 ‘3하오’ 회사를 차린 후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

19) 王朔, 「你不是一個俗人」, 『收穫』第二期, 1992.

20) 王曉明, 「九十年代與“新意識形態”」, 林大中編, 『九十年代文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21) 위의 글.

22) 王曉明, 「人文精神討論十年祭」, 『上海交通大學學報』第1號, 2004.

23) 王朔, 「你不是一個俗人」, 앞의 글.

24) 위의 글.

며 ‘치켜세우는’ 일을 한다. 치켜세우는 걸치레 말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평샤오강(馮小剛)이라는 ‘치켜세우는 전문가’도 초청하여 제대로 된 걸치레 말을 구사하기 위한 연습도 한다. 이들은 단절감과 소외감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우한슝(吳漢雄)은 7권밖에 인쇄되지 않은 논문집을 출간한 학자이다. 이 일로 그는 자신감을 잃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 양충과 마칭은 우한슝 집에 찾아가 그를 ‘고독한 대학자(寂寞的大學者)’라 치켜세워준다. ‘3하오’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덩샤오루(丁小魯)와 류메이핑(劉美萍)은 마찬가지로 은둔 생활을 하는 쉬다페이(徐達非)라는 한물 간 배우를 찾아가 재기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를 한껏 치켜세워준다.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했으나 아무도 읽어주는 독자가 없어 은둔한 학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한물간 배우, 삶의 무게에 떠밀려 길을 잃은 이들은 현대 대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대사에 열정적이지만 늘 패배하는 소시민의 모습이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의 모습이 해학과 풍자를 통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하오’ 직원들의 ‘치켜세움’에는 따뜻한 위로가 깃들여 있다. 이들은 타인을 ‘치켜세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지 못한 타인의 꿈을 회복시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어렸을 때부터 혁명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이에게 하루 동안 혁명열사가 되어 고문을 당하는 체험을 하게 해주거나, 장군이 꿈이었던 불량배를 별 다섯 개를 단 장군으로 만들어주어 그를 치켜세워준다.

위관을 비롯한 청년들은 「완주」에서는 오직 돈만이 이들의 최대 힘이었으며 인생 최고의 가치였다. 하지만 ‘3하오’ 회사를 차린 이들은 타인들을 도와주지만 절대 돈을 받지 않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았다.

“나는 수고비를 받아야 된다고 봐. 티 나지 않게 치켜세우는 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비싼 가격을 매길 건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할 건데?”

“우린 돈을 받지 않을 거야.”

“판로를 개척한 후에도?”

“그래도 돈을 받지 않을 거야. 이는 ‘3하오’ 회사를 만든 초창기부터 결

정된 사항이었어.”

“의무적으로 사람을 지켜 세워야 한다는 거야?”

“생각을 좀 해봐. 이 일은 원래부터가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야. 만약 돈을 받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고결한 것에서 속된 것으로 바뀌게 돼. 다시 말해서 돈은 받아서 뭐하게. 우리는 진리만을 추구할 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sup>25)</sup>

이들은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일의 특성상 무보수여야지만 떳떳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은 “진리만을 추구할 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왕취는 「완주」에서는 건달들의 거침없는 욕설과 외설로 엘리트 지식인층의 부패와 위선을 조롱하고,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이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완주」에서 인생의 의미를 그저 ‘즐거움’에서 찾았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완주’들은 사회적 규칙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문혁 시기에 소년시절을 보내고 ‘개혁개방’ 정책 실시와 함께 어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자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물론 오랜 진화에 의해서 확립된 사회적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 하지만 「속물」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는 여전히 ‘돈’의 논리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물욕주의’가 압도적으로 사회에 만연되어있을 때 이들은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에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야말로 속물들의 꿈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속물」이 대중에게 소설로서 주목 받지 못한 건 ‘완주’의 패턴에 익숙한 독자에게 변화된 건달들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완주’가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회 부조리를 몸소 실천하는 지식인들의 위선에 대해 북경의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응징하는 주인공 건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평범한 독자들은 배설과도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작가는 「속물」에 와서 건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감동

25) 위의 글.

하기를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맵고 짠 음식에 매료되어 있는 데 담담한 웰빙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기에는 서민들에게 아직 사회 부조리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견고해지는 상황이었다.

### 3. 〈갑방을방〉—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

〈갑방을방〉은 중국 최초의 ‘하세편’이다. ‘하세편’은 ‘새해를 축하하는 영화’라는 의미로서, 이른바 설날 대목에 상영되는 영화를 일컫는다. 이 명칭이 중국에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청룽(成龍)의 〈홍번구(紅審厘)〉상영 때부터였다. 당시 설날 성수기에 개봉되었던 〈홍번구〉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8000만 위안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트루 라이즈(True Lies)〉에 이어 흥행 2위를 차지했다. 상강(香港) 영화가 득세하던 중국의 설날 성수기에 1998년에 평샤오강의 〈갑방을방〉이 전국적으로 빅히트를 치면서, 국산 춘절 성수기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갑방을방〉이후 유명 감독들도 설날을 겨냥하여 작품을 개봉하면서 중국 영화의 흥행 수입도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원래 ‘하세편’이라는 명칭은 상강에서 사용되었던 명칭이었으나, 이후부터 중국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루샤오양(陸紹陽)은 『중국당대영화사: 1977년 이후(中國當代電影史: 1977年以來)』에서 평샤오강의 초기작품인 ‘하세편’의 특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첫째, 평샤오강의 기상천외한 영화는 관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의 영화는 중국영화의 색다른 언어적 시스템과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영화와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둘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는 중국 영화의 상업적 측면을 겨냥한 본토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니버설 형식을 취한다. 넷째, 소시민의 꿈과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희극화시켰다.<sup>26)</sup> 〈갑방을방〉은 루샤오양이 서술한 것처럼 네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영화로서, 주인

26) 陸紹陽, 『中國當代電影史: 1977年以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12-113쪽.

공으로 등장하는 네 명의 남녀가 의뢰자의 꿈을 하루 동안 실현시켜주는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의 핵심주제는 현대인의 자기 발견과 목가적 꿈의 실현이다.

「속물」에 등장한 다섯 명의 청년들은 〈갑방을방〉에서는 더 이상 건달이 아니다. “저는 야오위안(姚遠)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입니다. 저는 장점이 6이고, 단점이 4인 무명 배우입니다. 1997년 여름에 집에서 놀고 있는 조감독인 저우베이옌(周北雁)과 영화 소품 담당자인 량쯔(梁子) 그리고 영화 편극인 첸강(錢康)과 함께 틈새시장인 서비스업 회사를 차렸습니다.”<sup>27)</sup> 영화는 주인공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감독은 여기서 마치 ‘완주’시리즈를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 ‘완주’에 나오는 건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영화 주인공들은 영화를 다룰 줄 아는 즉, 현실을 영화처럼 꾸밀 줄 아는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여름에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이라는 회사를 차려, “하루 동안 고객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28)</sup> 처음에는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후에는 공짜로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등 자선단체의 성향이 강해졌다. 이들은 「속물」에서처럼 여전히 “진리만을 추구할 뿐, 돈을 사랑하는 사람”<sup>29)</sup>들이 아니었다.

영화 배경도 마찬가지로 중국 베이징이다. 소설은 청년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통해 현재까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당대 상류층 지식인의 허세와 위선을 비판적으로 그려냈다면, 영화는 물질적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아온 현대인의 목가적 꿈을 되찾아주면서, 동시에 당시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 소설과 다르다. 평샤오강은 「속물」 중 의뢰자의 ‘꿈’에서 두 가지의 꿈만을 섭취했다. 이 두 가지는 왕쉬의 혁명과 전쟁의 결과물이었다. 하나는 인력거를 모는 반예(板爺)가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미국의 조지 패튼(George S. Patton) 장군이 되는 것과, 뚱뚱한 사천 요리사가 지독한 학대와 고문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혁명 열사가 되고자

27) 馮小剛, 〈甲方乙方〉 대사 중.

28) 馮小剛, 〈甲方乙方〉 대사 중.

29) 王朔, 「你不是一個俗人」, 앞의 글.

했던 부분이다. 평샤오강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영화로 가지고 올 때 반에는 서점 주인으로, 왕취의 혁명은 '신해혁명' 시기로 수정했다. 이는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자 했던 평샤오강의 의도로 보인다.

두 가지의 꿈 이야기에 영화는 다섯 가지의 꿈을 더 추가했다.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구박을 받는 꿈, 돈 많은 부자가 시골로 내려가 가난한 나날을 보내는 꿈, 실연당한 청년이 여자 친구를 되찾는 꿈, 인기 여가수 탕리쿤(唐麗君)이 평범한 삶을 사는 꿈, 베이징과 시골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함께 사는 꿈 등 현재 중국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시민의 모습이다. 이러한 꿈들의 합류는 역사에 대한 왕취의 기억을 새로운 시대적 내용으로 대체하려는 평샤오강의 시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결코 관객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평범하거나 열등하다.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관객들은 쉽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공감하게 된다. 이들은 하루 동안이지만 관성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꿈꿔왔던 삶을 살게 된다. 꿈을 실현한 이들도 있고, 꿈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은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스토리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스토리'와 사건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담화'의 층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속물」은 소시민들의 삶의 희망과 절망을 절묘하게 나타내어주는 스토리이지만, 하지만 '담화'는 스토리를 극적으로 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리메이크 스토리를 접하면서도 여전히 새롭고 즐겁게 그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담화의 힘이며, 스토리텔링의 힘이다.<sup>30)</sup> 〈갑방을방〉은 '담화'의 힘을 보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담화를 추가했다. 첫째는 야오위안과 저우베이옌과의 애정전선이다. 야오위안은 당시 티켓 파워인 거유(葛優)가 맡았으며, 그의 상대역으로 류베이(劉蓓)가 저우베이옌 역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이 둘은 회사 동료였으나, 아버지에게 집을 받기 위해 야오위안은 농담처럼 저우베이옌에게 구애를 한다.

저우베이옌: 사랑 없는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야오위안: 집 없는 결혼이야말로 불행한 거야.<sup>31)</sup>

30) 류철균, 한혜원 외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68쪽.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집을 배정받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결혼을 할 경우 먼저 과도한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의 제한을 두었다. 국가에서 허용한 결혼 적령기가 되어 결혼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을 배정받을 때까지 결혼생활을 연기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결과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신랑감이나 신부감으로 떠오르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과 함께 열렬히 사랑해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집을 배정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 함께 살지 못하는 일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sup>32)</sup>

‘담화’의 두 번째로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의 이야기를 엔딩컷으로 추가하였는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당시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건드리면서 감동을 불러넣기 위한 영화적 장치에 가깝다. 베이징 호적의 남편과 칭하이(青海) 호적의 아내가 20년 넘게 떨어져 살아오고 있다. 아내가 간암에 걸려 곁에서 돌봐주고 싶으나 호적문제와 변변한 집도 장만하지 못해 시골에서 홀로 죽어가는 아내를 베이징으로 불러오지 못하는 노동자 남편은 자신의 의지나 열정과는 무관하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곁돈다.

이 노동자는 주택을 받아 아내를 베이징으로 데려오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눈물겹게 노력한다. 하지만 이처럼 열정적 개인이 오히려 패하는 현실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삶의 모습이다. 남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오위안과 저우베이옌은 자신들의 신혼집을 빌려준다. 결국 아내는 죽었지만 남편은 집 열쇠를 돌려주려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 회사에 방문하여 아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회상한다. “아내가 이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마 모르실거예요. 창문도 반짝반짝하게 닦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어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부축임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둘러봤어요. ‘더 이상 바랄게 없다’면서 눈을 감았어요.”<sup>33)</sup> 남편의 애통함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는다.

평샤오강 감독은 ‘완주’ 시리즈의 사회 하층 계급의 위선적 지식인의 응징이라는 구도는 과감하게 버렸다. 영화에서는 소설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섯 가지 이야

31) 馮小剛, 〈甲方乙方〉 대사 중.

32) 경향신문, 「新燕行記——‘두子女’ 넘으면 주택·취업 “차별”」, 1992.2.21.

33) 馮小剛, 〈甲方乙方〉 대사 중.

기를 새로 각색하면서 서민과 지식인, 유명 스타를 어울려 놓았다. 사회 부조리나 계층 갈등과 같은 무거운 사회문제를 희극적 터치로 건드렸으며, 감동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철저하게 관객들을 웃기고 울림으로써 소설 「속물」과는 사뭇 다른 영화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갑방을방〉제작비는 “400만 위안이었고, 베이징만 해도 모든 투자액을 회수했다. 흥행수입은 1150만 위안이었고, 전국에서의 흥행수입은 3300만 위안이었다. 국산 영화의 흥행 수입은 수만, 수십만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천문학적 수치였다.”<sup>34)</sup> 〈갑방을방〉의 흥행으로 인해 저조했던 중국 영화산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관객들이 영화관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사실 당시 영화산업은 “1994년에 할리우드 영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도입되면서 쇠퇴했던 영화관은 다시 열광적인 관객들로 붐비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영화가 부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평샤오강 감독의 코미디 영화를 제외하면 중국 영화는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에 전혀 맞서지 못하고 영화 시장 주변으로 몰려났다.”<sup>35)</sup>

#### 4. 나오며

왕취 소설의 언어는 유머러스하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련되다. 그의 소설에서는 지식인을 비꼬는 말이나 장면이 자주 보인다. 때로는 지식인은 사회나 정부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왕취 소설은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취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와 전통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에 대해 소시민의 입장에서 ‘완주’들의 입을 빌려 풍자와 반어적인 표현으로 상류층과 지식인의 위선과 물질만을 중시여기는 대중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드러낸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징을 무대로 사회 하층에 속해 있는 베이징 건달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완주」에

34) 周慧, 앞의 책, 171쪽.

35) 戴錦華, 「百家講壇中國電影百年紀念中國電影誕生一百周年」DVD, 中國國際電視總公司出版, 2005.

등장한 젊은 건달들은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였다. 돈을 벌기 위해 '3T' 회사를 차렸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도덕적 기준도, 양심의 가책도, 꿈도 없다. 절망적인 삶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이들은 「속물」에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났다. 이들은 '3하오' 회사를 차려 다른 이들의 꿈을 회복시켜주며 자신들의 꿈도 회복한다. 이들에게 이제 돈은 문제가 아니다. 소설 속의 스토리는 〈갑방을방〉이라는 영화 매체로 바뀌면서 가장 극적이며 몰입감 높은 스토리로 변신했다. 이들은 아예 다른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 떠나는 꿈 여행'이라는 회사를 차린다. 이들은 세 번의 회사를 차리며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켜준다.

왕쉬의 소설은 당시 대중들이 요구했던 오락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의 다수의 작품이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그 중 〈갑방을방〉이 대성공했다. 〈갑방을방〉의 원작 소설인 「속물」은 왕쉬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중 그다지 흥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설이 영화로 각색되면서 스토리는 좀 더 진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었으며, 공감과 진한 감동으로 관객들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평샤오강의 〈갑방을방〉은 할리우드 영화가 강세를 보일 때 당시 자국 영화로 오롯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왕쉬와 평샤오강은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 경제와 사회 전환기에 형성된 당시 중국 특유의 현상을 유머 넘치는 언어로 당시 사회적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왕쉬의 소설과 평샤오강의 영화는 중국 현대문학 문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왕쉬는 대중문화를 이끌어간 인물로서 숨겨진 시대적 진실을 사실적으로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냈으며, 평샤오강은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모순을 다루면서도 온기와 유머, 그리고 영화의 대중성을 잃지 않았다.

〈參考文獻〉

1. 텍스트

- 王朔, 「頑主」, 『收穫』第六期, 1987.  
\_\_\_\_\_, 「你不是一個俗人」, 『收穫』第二期, 1992.  
馮小剛, 〈甲方乙方〉, 1997.

2. 중국어 자료

- 戴錦華, 「百家講壇中國電影百年紀念中國電影誕生一百周年二」DVD, 中國國際電視總公司出版, 2005.  
豆瓣, 「從《頑主》到《甲方乙方》, 《私人訂製》是屬於誰的訂製?」, 2013.12.27.  
單光肅, 『偏離與吸納——中國青年發展報告』, 遼寧人民出版社, 1994.  
馮小剛, 『我把青春獻給你』,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3.  
林大中編, 『九十年代文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陸紹陽, 『中國當代電影史: 1977年以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人民網, 「王朔的影像化之路: 文字與影視聯姻的“范本”」, 2013.12.27.  
王曉明, 「人文精神討論十年祭」, 『上海交通大學學報』第1號, 2004.  
肖珂, 『光明日報』, 1989.6.6.  
許紀霖, 「大我的消解: 現代中國個人主義思潮的變遷」, 『中國社會科學輯刊』第26號, 2009.  
周慧, 『誰製造了中國電影的神話』,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5.  
左舒拉, 「王朔——無視常規的俗人」, 『大眾電影』第六, 七期連載, 1989  
每日頭條, 「中國國企工人與技術人員的等級取得和收入差別」, 2016.9.1.  
中國新聞網, 「評論: 《私人訂製》明顯更嚴肅了」, 2013.12.20.  
Sina影音娛樂, 『《南方人物周刊》: 馮小剛被挫敗的人才能成功』, 2009.1.9.

3. 한국어 및 일본어 자료

- 경향신문, 「新燕行記——‘두子女’ 넘으면 주택·취업 “차별”」, 1992.2.21.  
류철균, 한혜원 외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박재연 옮김, 『물위의 연가』, 빛샘, 1992.  
박재연 옮김, 『노는 것만큼 신나는 것도 없다』, 빛샘, 1992.

吉川 龍生, 「王朔小説序論: スタイルの変遷と第一次王朔現象を中心に」, 『藝文研究』 Vol.84, 慶應義塾大學藝文學會, 2003.

〈Abstract〉

Another Aspect of the Wang Shuo Novels,  
a Film "The Dream Factory (甲方乙方)"

Hwang, Sun-Mi

As a popular novelist in 1980s and 1990s, Wang Shuo (王朔) realized that his unique narrative method was an element that becomes a fashion item of the market, and he began making works of high value.

"Wanju (頑主)" is a process of revealing the crooked desire of the masses and false cynicism and falsehoods of high-ranking intellectuals through the eyes of scamps at the lower class in the society where materialism was rampant in the 1980s, and "You Are Not a Snob" is a process of restoring a dream so that they can dream again while the main character scamps flatter these people and disarm people without paying a penny. And the Dream Factory can be summarized as a process of making an unfulfilled dream come true.

With the keyword, 'scamp' penetrating these three works, starting with "Wanju", developing the narrative evolved into "You Are Not a Snob (你不是一个俗人)", and media shifting to the film, The Dream Factory (甲方乙方), the director is Feng Xiaogang (冯小刚). He established himself as a major director by successfully creating the genre of New Year Blockbusters in 1997 with The Dream Factor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narrative processes from the crooked desire → recovery of dream → dream realization to the dramatic 'discourse' level of story + event. It can be said that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be meaningful in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by bringing existing literary works

into the realm of culture.

Key words: Wang Shuo, Feng Xiaogang, Wanju, You Are Not a Snob, The Dream  
Factory, Scamp

이 논문은 2018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  
년 5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